

좋은 이웃

2021 겨울호 vol.173



좋은 이웃

2021 겨울호
vol. 173

발행정보 통권 제173호
발행일 2021년 1월 2일
등록번호 영등포, 마00053
발행인 이일하, 이호균
편집인 김웅철, 김중곤
발행처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화 02-6717-4000
팩스 02-6424-1993
디자인 더 디앤씨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이메일 gni@gni.kr
회원문자 #8004(문자 한 통에 5,000원)
회원계좌 우리은행 1005-201-048577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지로번호 7531569
회원문의 1544-7944

재능 나눔
표지 굿네이버스 / 몽골
사진 김소정, 노성철, 박찬학, 신문식,
오테경, 장군, 채우룡

 홈페이지 goodneighbors.kr
 기부스토어 givestore.kr
 페이스북 goodneighbors
 블로그 gnblog.kr
 인스타그램 goodneighbors
 트위터 Good_Neighbors
 카카오톡 굿네이버스
 유튜브 굿네이버스

Good Story

- 04 테마**
2021, 서른 살
- 06 기획특집**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다”

Good Change

- 12 현장이야기 1**
키르기즈공화국 주민이 만든 변화,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 16 현장이야기 2**
상상이 현실로, 우리가 만든 우주공간!
- 19 현장이야기 3**
찰칵! 자선화보 맛집 광스튜디오로 오세요!
- 22 현장이야기 4**
아동권리옹호 캠페인,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Good Movement

- 24 우리가 만드는 희망 1**
지구 반대편 소녀들의 반짝이는 공간, 소녀공간
- 28 우리가 만드는 희망 2**
국민이와 유빈이에게 찾아온 따뜻한 겨울
- 30 희망편지쓰기대회, 그 후**
희망편지가 선물한 말라위 소년의 행복한 하루
- 32 10대 참여 캠페인, 그 후**
친구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친한 송’으로 배워요!
- 34 좋은 이웃 ON&OFF**
SNS로 보는 굿네이버스
- 37 NEWS**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이사장 이일하 / 동기이사 박종훈(법무법인 신우 대표 변호사) 김영호(대명교회 담임목사) 채종일(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장현식(강원대학교 초빙교수) 조성천(이리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중곤(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 / 총대이사 정해원(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이사장) 이호균(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이사장) 김인희(재단법인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이사장) 김신순(굿네이버스 자문위원) 이봉주(서울대학교 교수) 배기수(아주대학교 교수) 천정환(법무법인 헌정 변호사) 양영애(인제대학교 교수) 임기선(충북대학교 교수) 박용삼(진산업 대표) 양진욱(재단법인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한기양(굿미션네트워크 회장) 김웅철(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현진영(재단법인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 배임호(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구영철(대충중앙초등학교 교장) 박성훈(안양법원초등학교 교장) 박인재(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필(금정초등학교 교장) 신인수(신미림초등학교 교장) / 감사 고정식(前 특허청 청장) 황성식(신도리코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이사회 명예이사장 정해원 / 이사장 이호균 / 이사 조성천(이리중앙교회 담임목사) 배기수(아주대학교 교수) 이봉주(서울대학교 교수) 배진석(다솔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소연(남서울대학교 교수) 김웅철(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 감사 박진현(우리회계법인 이사) 천정환(법무법인 헌정 변호사)



1991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세워진 굿네이버스가
올해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나눔으로 채워진 30년의 시간,
좋은 이웃이 이룬 제일 큰 기적입니다.



1991년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의 좋은 이웃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굶주림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 하나로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향해 달려온
30년의 시간.

2021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사랑을
가득 품고 30년의 한 해를 시작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의
곁을 지키며 희망을 전하는
굿네이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다”

굿네이버스가 1991년 한국에 세워진 후, 소외된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한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걸어온 길에서 만나 각기 다른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나눔의 동행자들,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좋은 이웃을 만나봅니다.

1991년, 창립부터 이어진 30년의 나눔

유재신 회원님



1991년 ‘좋은 이웃’ 소식지 창간호

유재신 회원님은 굿네이버스가 창립한 1991년부터 지금까지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30년 지기 나눔의 동행자입니다. 약사로 일하고 있는 유재신 회원님은 굿네이버스(창립 당시 ‘한국이웃사랑회’)라고 쓰여 있는 작은 책자를 보고 1991년 9월 18일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일 때는 삼삼오오 모여 봉사활동도 갔었는데, 약사가 된 후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 어떻게 도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게 굿네이버스라고 쓰여 있는 소책자 속 밝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책자를 약국에 비치해놓기도 했다는 유재신 회원님이 30년 동안 나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후원금을 잘 사용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재신 회원님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해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나눔의 가장 큰 장점이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찾아내 도움을 전하는 역할을 굿네이버스가 앞으로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어느 나라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꾸준히 피드백을 보내주니까 그걸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내서 도움을 전하고 있다는 게 고맙고요.”

1994년, 르완다 긴급구호 현장에서 만난 좋은 이웃

실베스터 무린다뷰마 씨



르완다 긴급의료구호사업 모습



1994년, 루가리 난민 보조캠프를 찾은 굿네이버스에 대해
통역하며 설명하고 있는 실베스터 씨(오른쪽)

1994년 종족 분쟁으로 인한 내전으로 삶과 죽음이 뒤엉켜 있던 르완다에 한국 NGO 최초로 긴급의료 구호사업을 펼친 굿네이버스. 신속하게 의료구호팀을 조직해 향한 르완다 서북쪽 대규모 난민촌에서 실베스터(Sylvestre Mulindabyuma) 씨를 만났습니다. 현재 르완다 고등법원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실베스터 씨는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신들을 돕겠다고 온 낯선 한국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절망 끝에 선 르완다 사람들이 다시 삶의 의지를 붙들 수 있도록 난민캠프 안에서 질서를 정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굿네이버스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실베스터 씨는 말합니다.

“정말 어렵던 시절 어떤 보상도 없이 보여주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Good Neighbors

“집단 학살과 내전으로 피신해 온 곳이 콩고민주공화국의 루가리(Rugali) 난민 보조캠프였습니다. 물, 음식, 의료품 등 모든 것이 부족했던 우리에게 다가와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굿네이버스의 태도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문 닫을 위기의 방글라데시 학교에 찾아온 희망

난투 고팔 다스 선생님



बाटारा 초등학교의 학생들 모습



학교에서 수업 중인 난투 선생님

1996년 첫 해외사업국인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난투 고팔 다스(Nantu Gopal Das) 선생님은 여전히 굿네이버스와의 인연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굴산 가정개발사업장 빈민촌에 위치한 बाता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굴산 지역 아이들에게 정규 교육과 장학 사업을 진행했던 굿네이버스는 가장 어려운 지역을 골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고 있는 난투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꿈을 그리고, 사회 복지사로 일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문을 닫을 정도로 학교가 어려웠던 1996년, 굿네이버스를 만나 도움을 받았고 교육을 넘어 의료, 권리옹호 활동까지 하며 학교는 물론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역 내 일어나는 좋은 변화를 겪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बातारा 초등학교 하나뿐이었던 지역 안에는 고등학교, 대학교가 설립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내 도와줬던 것처럼 도움이 간절한 지역을 더 많이 지원해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돕길 바랍니다. 굿네이버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동권리를 전한다는 사명감이 이끌어준 나눔의 길

사회개발교육강사 및 멘토강사 김소희 선생님



굿네이버스는 유아, 초등, 청소년 등 연령대별 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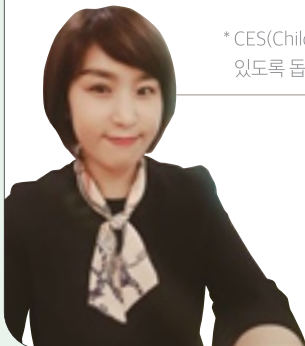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김소희 선생님

굿네이버스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며, 나눔과 협력을 기반으로 더불어 사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개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별 교육 진행을 위해 전국에서 권리교육 강사님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중 지난 2010년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 CES*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소희 선생님은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해 온 노하우를 교육 프로그램 개편, 시범 교육 등에 함께 녹여내며 아동권리 증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무거운 주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참여와 공감으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굿네이버스만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서로 공감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배려하며 마음과 생각이 열리면서 학교폭력을 대할 때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업이라 늘 감동스러워요.”

김소희 선생님은 두 자녀를 키우며 복지관에서의 봉사 기회로 알게 된 굿네이버스를 통해 아동권리를 꾸준히 접하고 공부해 이제는 사회개발교육강사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 CES(Child Empowering Service) : 아동 스스로 몸의 소중함을 알고 성학대, 유괴 등 위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굿네이버스와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굿네이버스와 함께 제 인생의 길도 같이 걷고 싶어요.”

800통의 결연아동 편지를 번역하며 느낀 찐사랑

번역 자원봉사자 김정은 회원님



'I'm your PEN' 오리엔테이션 모습

세계 각국에서 오는 결연아동의 편지를 번역하는 'I'm your PEN' 번역 자원봉사자로 8년째 활동 중인 김정은 회원님은 10년 전 첫째 자녀를 통해 굿네이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희망편지쓰기대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안내지를 보고, 첫째와 둘째 아이 모두 나눔을 시작하게 됐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번역 봉사료 재능을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벌써 8년이 됐네요.”

2012년 번역 봉사를 시작하고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이 주고받는 수백 통의 편지를 번역하면서 김정은 회원님은 편지 속 따뜻한 이야기에 덩달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굿네이버스를 통해 후원을 받아 어른이 된 학생이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됐다면서 형편에 맞춰 후원을 시작했다는 편지를 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코로나19로 결연아동들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편지로 접한 아동들이 위생교육과 위생물품 등 지원을 받고 잘 지낸다는 편지를 보면 안심이 된다는 김정은 회원님은 번역 봉사를 하면서 삶의 만족감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결연아동들의 편지 속 이야기를 보면서 나눔이 모여 세계 곳곳 어린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나눔의 힘을 담은 편지를 보며 저 역시 봉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이 굿네이버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정확한 눈으로 자세히 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해주세요. 실질적인 도움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굿네이버스가 되길 바랍니다.”

- 유재신 회원님 -



“르완다에서 굿네이버스는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교육을 통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알려준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활동과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실베스터 무린다뷰마 씨 -



“굿네이버스를 통해 방글라데시 지역사회는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곳이 변화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굿네이버스가 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난투 고팔 다스 선생님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라고 믿어요. 굿네이버스와 학교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던 만큼 아이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NGO가 되어주세요.”

- 김소희 사회개발교육강사 -



“도움을 받은 결연아동이 후원을 받고 잘 성장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시작했다는 편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꿈꿀 수 있는 삶을 앞으로도 만들어주세요.”

- 김정은 회원님 -

굿네이버스가 걸어온 시간 속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의 손길과 나눔의 마음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1991년,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겠다 약속했던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늘 새롭게 도전하고, 마음을 다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갈 앞으로의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키르기즈공화국 주민이 만든 변화,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 빌리지 프로젝트(My Village Project)를 진행하고 있는 키르기즈공화국의 30개 마을인데요. 마을의 발전을 위해 뭉친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서 만든 놀라운 변화를 3곳의 마을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지역 발전의 중심에 선 주민들

울퉁불퉁했던 길이 안전한 포장도로로 바뀌고, 지은 지 오래된 병원과 학교가 새롭게 리모델링되며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로까지! 바라던 모습으로 변화된 마을 모습에 지역주민들의 웃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키르기즈공화국 농촌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 마을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지역개발사업(My Village Project)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참여하고 있는데요. 주민의 손으로 만든 변화가 마을 곳곳에서 일어날수록 주민들의 협동심과 자립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병원 건축

오이탈 마을의 유일한 보건소는 매우 좁고 시설이 부족해 간단한 외과 치료도 쉽지 않고, 산부인과 시설이 없어 연간 60~70명의 산모들은 75km나 떨어진 다른 마을의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보건소 개보수를 1순위로 꼽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결과, 보건소는 산부인과 진료 장비 등 다양한 의료기기와 난방 시설을 갖춘 넓고 쾌적한 병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병원에서 주민들은 양질의 보건 서비스와 함께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공사에도 주민 적극 참여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값집니다.”

마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전과 달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었기에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입을 모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실제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된 한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직접 마을의 발전을 이끈 경험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마을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어 농산품 생산 등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리모델링된 병원 내부



진료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마을실행위원회와 병원 의료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건강을 잘 돌볼 수 있게 됐고 마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성취감에 모두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자신감으로 더 멋진 마을로 발전하게 될 우리 마을이 기대됩니다.”

- 카눔잔 / 오이탈 마을 N-13병원 의사 -



제빵과 제봉 교육 통해 취약계층 취업 성공

톨록 마을은 도심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시골이라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직업도 제한적이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이 절실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은 면사무소 부지의 폐가 건물을 개보수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마을센터를 건축했습니다. 또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제빵과 제봉 시설을 갖춰 취약계층 여성 10명을 고용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 간식으로 빵을 제공하고 천 마스크를 무료로 만들어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등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물론 공동체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방과 후 교실로도 사용하며 지역아동 케어까지

“마을센터는 마을의 거점이자 희망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과 건축 자재를 후원하고 무보수로 센터 설립에 참여하는 등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을 쏟았기에 마을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은 남다른데요. 이런 주민들의 마음에 지역정부도 난방과 전기를 제공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제빵과 제봉 외에도 마을센터는 현재 방과 후 수학교실로서 약 20명의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소중한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마을센터



빵을 굽고 있는 지역주민



제봉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



“자발적으로 기금과 건축 자재를 후원하거나 무보수로 일하는 등 주민들의
땀이 모여 마을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 뿌듯합니다.”

- 에베트르 / 톨록 마을 면장 -



유치원 개보수로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도수톡 마을은 대부분의 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유치원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 안전하지 못해 지역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교육 시설의 부재가 심각했기에 주민들은 가장 먼저 유치원 개보수로 의견을 모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유치원에는 안전한 교실은 물론 주방, 화장실, 놀이터 등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고 학부모 역시 안심하며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화된 환경으로 마을에 대한 강한 의지 생겨

새로 지어진 유치원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해서 얻은 첫 성과입니다. 사업 초기 주민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참여율이 낮았는데요. 마을 실행위원회의 꾸준한 설득으로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유치원 개보수로까지 변화의 물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떠나기보다 힘을 모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자는 강한 의지를 갖고 더 나은 마을의 모습을 상상하며 또 다른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된 유치원 전경



새로 생긴 주방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



“유치원이 바뀐 후 친구들이 늘어 세르게이(딸)가 유치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모습에 저 역시 기뻐요. 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집안일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함마디에바 / 도수톡 유치원 조리사 겸 학부모 -

주민 스스로 마을의 발전을 주도하며 협동심과 자립의 힘을 키우는 키르기즈공화국의 지역개발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 마을 곳곳을 기대하며 올해도 굿네이버스는 지역주민과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우리가 만든 우주공간!

친구들과 학교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은 아이들. 굿네이버스는 이에 주목해 서울 아현초등학교, 건축공방과 함께 공간 계획 전 과정에 아동이 참여하는 우주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행복한 공간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장교 / Good Neighbors

학교에 생긴 우리만의 공간



우주공간 탄생 스토리를
영상으로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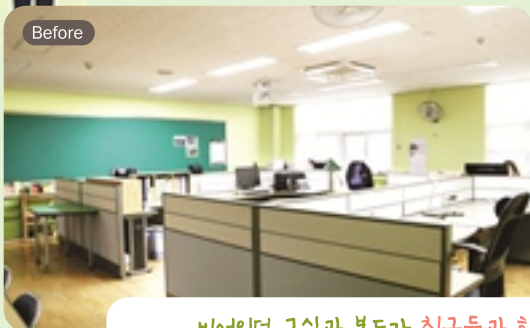
우주공간 프로젝트는 아이들에게 아동 중심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내 유휴공간을 아동이 행복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인데요. 굿네이버스는 이처럼 아이들에게 중요한 장소인 학교 안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현초등학교 3층의 2개 교실과 복도를 합쳐 완성된 특별한 우주공간! 총 303일간의 프로젝트 기간을 거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우주공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Before



After



© 장군 / Good Neighbors

비어있던 교실과 복도가 친구들과 함께 누리는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소중한 공간



© 장군 / Good Neighbors

“친구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둥글고 꼭신한 소파가 놓이면 좋을 거 같아요!”

친구들과 모여 앉아서
신나게 놀고 즐겁게 소통해요!



© 장군 / Good Neighbors

암벽등반을 즐기며
자유롭게 몸을 움직여요~



“바깥에 나가지 않고도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실내 놀이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창의적인 소통이 이뤄낸 결과

우주공간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주인인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 의미에 걸맞게 공간 활용과 콘셉트, 디자인 등 약 1년간 진행된 전 과정에 아현초등학교 학생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실제 시공 전 아현초등학교 전교생에게 가정통신문을 전달해, 우주공간에 필요한 점을 글과 그림을 활용해 자유롭게 제출하게 했습니다. 또한 의견 수렴 이후 아동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총 3회 진행하며 건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우주공간 모형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들은 워크숍에서 주도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우주공간에 대한 주요 컨셉을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완공된 우주공간을 보며, 모든 프로젝트 과정에 참여한 선생님과 건축가, 학생들도 소감을 밝혔는데요. 선생님과 건축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즐겁게 참여해 준 학생들에 대해 기쁨과 놀라움을, 학생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우주공간에 대해 뿌듯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우주공간이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우주가 되어, 마음껏 어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즐거운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 김명주 / 아현초등학교 교사 -

“제가 설계한 게 눈 앞에 펼쳐지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뻐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어요.”

- 배수완 / 아현초등학교 5학년 -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이곳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 주길 바랍니다.”

- 심희준, 박수정 건축가 / 건축공간 -

굿네이버스는 서울 아현초등학교에 세워진 우주공간 1호에 이어, 산불로 아픔을 겪었던 강원도 고성 인흥초등학교에 우주공간 2호를 세우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즐겁고 편해질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찰칵! 자선화보 맛집 광스튜디오로 오세요!

이슈데이에 맞춰 그날에 맞는 콘셉트로 셀럽의 자선 화보가 진행되는 글로벌 자선화보 메이킹 프로젝트, '사진실의 광선생님'이 지난해 10월 굿네이버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에 나눔의 따스함까지 가득했던 광스튜디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광희와 옥상달빛

☆ 국제 기념일*에 맞춰 찍는 셀럽의 자선화보

‘사진실의 광선생님’의 진행자는 바로 방송인 광희 씨. 한 달에 한 번 문을 여는 ‘광스튜디오’에서는 셀럽과 함께 ‘세계 여자아이의 날’, ‘세계 어린이날’ 등 매달 주목할 만한 국제 기념일을 주제로 자선화보를 촬영합니다. 사진 속 포즈부터 최종 사진 선정까지 굿네이버스 유튜브 구독자들의 참여로 꾸며지는데요. 생중계 중 실시간 기부도 가능해 시청자들이 나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한 의미를 재밌게 풀어내며 즐거움도 전달했습니다.

* 국제 기념일이란?

국제적으로 세계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유엔(UN)에서 공식 지정한 날입니다.

↳ 슬기****생활 모모랜드와 광희 씨의 모습처럼 전 세계 소녀들이 환하게 웃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 SO**A 세계 어린이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진실의 광선생님’ 이날치 편을 보고 처음 알게 됐네요.

↳ kim***h 저도 옥상달빛 따라서 기부 시작 후 계속해서 나눔을 이어오고 있어요!

생생하게
소통하며
권리와 나눔의
중요성을
함께 배워요!



‘사진실의 광선생님’을 찾아온 셀럽들은 누구일까요?

10월에는 ‘세계 여자아이의 날’(10/11)을 맞아 여성 아이돌 그룹 모모랜드가 첫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생중계 당시 많은 시청 인원 수가 몰리며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아 화보를 촬영한 모모랜드

있었는데요. 10대 때부터 활동을 시작한 모모랜드는 특히 여아권리에 관심이 높아 지난해 여름 여성용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날은 모모랜드와 함께 전 세계 여아권리 실태를 살펴보고, 다른 환경 속 여아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나누며 소녀들 특유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흥겨운 공연을 선보이는 이날치

“나눔의 의미를 친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 이날치 -



11월에는 ‘세계 어린이날(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일)’(11/20)을 맞아 ‘뽀내려온다’ 등 판소리를 새롭게 재해석한 곡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날치가 함께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이날치의 흥겨운 무대는 물론 세계 곳곳의 아동 권리 침해 실태를 돌아보고, 국내·외 위리아동 지원을 위한 화보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12월에는 따뜻한 노랫말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옥상달빛**이 2020년의 마지막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12/10)을 주제로,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잘 지켜졌는지 생각해보고,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12월 ‘사진실의 광선생님’ 현장에서 위로와 따뜻함을 전한 옥상달빛

옥상달빛은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떠났던 기억을 토대로 ‘염소 4만 원’이라는 그림 동화책을 출간하고, 인세의 일부를 아프리카 염소 보내기 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인데요. 즉석에서 동화책 속 가사를 살린 동요를 들려주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담은 화보를 촬영하고, 유튜브 구독자들과 열띤 실시간 댓글로 퀴즈 코너도 즐겼습니다.



“2020년은 모두에게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나누며 다가올 한 해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옥상달빛 -



‘사진실의 광선생님’을 찾은 셀럽들의 자선 화보는 향후 기념물품을 제작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며, 수익금은 굿네이버스가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굿네이버스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굿네이버스 유튜브를 소개합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굿네이버스의 유튜브 채널**을 만나보세요!
‘사진실의 광선생님’을 비롯해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의 결과가 담긴 영상과 후원을 받은 아동들의 변화 등 함께 나누고픈 따뜻한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옹호 캠페인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지난해 8월,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일상의 큰 변화를 겪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답답한 마스크에 가려진 아이들의 목소리는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 이동건 / Good Neighbors

AR로 구현된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생각하는 아동권리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속에서도 ‘과연 우리 아이들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캠페인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권리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페이지에서 진행된 아동청원에는 두 달 동안 총 368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6,448개의 공감이가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올라온 12개의 내용을 골라 네이버웹툰 ‘유미의 세포들’ 이동건 작가님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굿네이버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동청원 참여



아동청원에 올라온
아이들 의견 12개 선정



선정된 의견을
‘유미의 세포들’로 표현



아이들의 의견이
마스크 위 AR로 구현!

아이들의 의견이 마스크에 보여지는 재미있는 체험을 해보세요!

* 네이버웹툰 '유미의 세포들' 이동건 작가님이 아동들의 의견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AR 체험하기!



© 이동건 / Good Neighbors

아동청원을 통해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추후 아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언제나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모든 아동의 소중한 권리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로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이웃으로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지구 반대편 소녀들의 반짝이는 공간, 소녀공간

소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소녀들의 특별한 공간이 르완다에 생겼습니다.

바로 ‘소녀공간’인데요. 르완다 소녀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녀공간’으로 좋은 이웃을 초대합니다.



카지나 학교의 소녀공간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학생들

학교에 생긴 여성 전용 휴게실과 화장실

르완다 여아 10명 중 1명은 생리를 금기하는 문화 때문에 생리 기간 동안 학교를 결석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로 꿈을 접어야 하는 르완다 여아들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소녀공간 캠페인’을 진행해, 르완다의 6개 학교에 여아들을 위한 소녀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위생용품과 여성 전용 화장실 및 휴게실을 갖춘 소녀공간에서 여아들은 꿈을 이어가는 동시에 보건위생 교육과 클럽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며 잘못된 관습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소녀공간'을 소개합니다!



© Good Neighbors

짜잔! 이곳은 쿠루시 학교에 지어진 소녀공간! 소녀공간으로 여학생들의 표정도, 학교생활도 더욱 활기차졌는데요. 발랄한 외관만큼 내부도 사랑스러운 소녀공간을 소개합니다.

여학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안락한 휴게실 마련



© Good Neighbors

쿵쿵 찌르는 생리통으로 휴식이 필요할 땐 휴게실의 편안한 침대에서 따뜻한 핫팩을 품고 휴식을 취하면 몸도 기분도 가벼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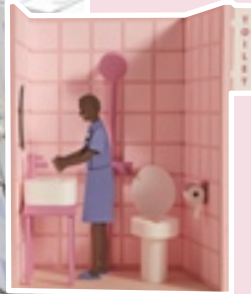
“갑자기 시작된 생리에 당황스러웠는데 선생님께서 소녀공간에 데려가 위생 패드를 주시며 힘들면 침대에서 쉬고 오라고 하셔서, 마음 편히 쉬고 다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소녀공간이 없었다면 그대로 집에 가 수업을 빠져야 했을 거예요.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녀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 투무쿰데 레온시아 / 14세 -

쾌적하고 깨끗한 여성 전용 화장실과 세면대 건축



© Good Neighb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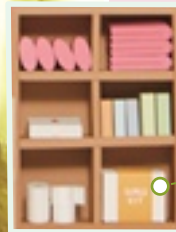
남학생과 마주치지 않는
여성 전용 화장실을
마음 편히 이용하며
청결하게 위생을
지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위생용품과 구급약



위생 패드, 구급약,
휴지뿐만 아니라 여벌의
교복과 담요 등 갑자기
시작된 생리에도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합니다.



“소녀공간에서 처음으로 제 몸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배웠어요. 아무것도 몰라 처음 생리할 때,
무섭고 창피했는데 자연스러운 성장이란 것과 안전하게 제 몸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안심이 됐어요.”
- 우와마호로 솔란지 / 15세 -



소녀공간 건축
6개 학교
소녀공간 수혜 여학생
2,346명



84% → 95%
생리기간 여학생
출석율



44% → 63%
생리 중 출석을 권리로
인식하는 여학생 비율



61% → 97%
여학생의 보건위생 시설
접근 비율

올바른 성 가치관과 여아의 권리를 키워주는 클럽 활동

굿네이버스는 소녀공간과 함께 12개 클럽을 조직해 교육 환경과 함께 여아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문화로 르완다 여아들 10명 중 6명은 ‘생리 중에는 학교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여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클럽에서는 성교육을 진행해 여아들이 2차 성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재사용이 가능한 위생 패드를 만들며 여아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또한, 권리 및 리더십 교육으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인식 변화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생리대를 만든 여학생들
2. 보건위생 교육 및 캠페인에 참여한 여학생들



좋은 이웃과 함께 만든 소녀공간은 르완다의 여아들에게 당연한 일상을 선물하는 동시에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인식 또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여아들의 일상이 계속 반짝이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민이와 유빈이에게 찾아온 따뜻한 겨울

굿네이버스 국내주거지원 캠페인과 MBC 드라마넷 '휴먼다큐 사랑 플러스' 방송을 통해 소개됐던 규민, 유빈이를 기억하시나요? 낡은 상가와 개조된 비닐하우스, 아이들이 지내기엔 위태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던 두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좋은 이웃의 나눔을 선물 받아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두 가족의 일상을 전해드립니다.



1. 이사 전, 낡은 상가의
단칸방에 살던 규민이

2. 규민이네의 안락한 방과
따뜻하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욕실



6살 규민이가 사는 세상, 그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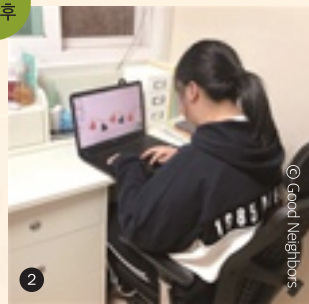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낙인감 방지 및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선천적 흉곽기형으로 호흡기 관리가 중요한 규민이는 낡은 상가 구석,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단칸방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조리 공간도 부족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밤에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기저귀를 차고 잤던 6살 규민이.

좋은 이웃의 마음이 모여 규민이네 가족은 안전한 환경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청결이 중요한 때, 깨끗한 개인 화장실과 따뜻한 방이 생겼고 생필품, 가전 가구 등을 지원하여 규민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 굿네이버스는 규민이네 가족이 되찾은 웃음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가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옛날 집에서 눈을 뜰까 봐...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규민이 엄마 -



1. 유빈이네가 거주하던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집
2. 새로 생긴 깨끗한 부엌과 지원받은 노트북으로 원격 수업에 참여 중인 유빈이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삼 남매의 소원, 그 후

태풍으로 찢겨진 비닐과 벽에 핀 곰팡이, 좁은 집 안에 위험하게 쌓인 물건들. 아픈 할머니, 아빠, 유빈이 삼 남매가 함께 사는 집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아빠마저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 유빈이네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연에 모인 좋은 이웃의 지원으로 다섯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집 안 개보수를 진행했고, 단열, 도배, 장판 공사로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노트북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원격 수업에 삼 남매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빈이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세요!

“벽에 곰팡이가 사라지고 도배와 장판까지 해주셔서 집이 밝아졌어요. 보내주신 고기와 과일 등으로 맛있고 든든하게 잘 먹고 있어요. 많은 것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빈이 -

“굿네이버스 덕분에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 유빈이 아빠 -

좋은 이웃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과 그 가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희망편지가 선물한 말라위 소년의 행복한 하루

가난과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망을 담은 편지를 적어 보내는 희망편지쓰기대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라위 소년 핫산을 위해 전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희망편지를 보내주었는데요. 희망편지로 시작된 핫산의 행복한 일상을 전해드립니다.



© Good Neighbors

기자를 꿈꾸던 말라위 소년

참여 학교

4,661개교

참여 학생

2,144,194명

올해 희망편지쓰기대회의 주인공은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에 살고 있는 열두 살 소년 핫산이었습니다. 핫산은 세 동생들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매일 학교 대신 공장에 나가 벽돌 나르는 일을 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친구들이 희망편지를 보내 핫산을 응원해 준 덕분에 핫산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핫산 오빠를 보면서 나도 내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 임*임 /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3학년 / 제12회 희망편지쓰기대회 외교부 장관상 수상 아동 -

나눔이 선물한 햇산의 일상

다시 만난 햇산은 웃음이 넘치는 개구쟁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대신 학교를 가고 싶었던 소원대로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 햇산. 동생들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매일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고,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는 튼튼한 보금자리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햇산은 오늘도 글을 쓰며 기자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 말라위에서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학년별로 시기를 다르게 하여 개학 및 등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햇산도 정부와 학교의 지침에 따라 등교할 예정입니다.



벽돌공장 대신 매일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햇산과 세 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벽돌집이 생겼어요!



햇산의 달라진 하루를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한국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안녕! 희망편지에 담긴 너희들의 응원 덕분에
요즘 나는 공부를 하고, 동생들과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

너희들의 편지는 내게 희망을 전해줬어.

기자가 되고 싶은 내 꿈을 놓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말라위에서 햇산으로부터



희망편지에 담긴 좋은 이웃의 진심 어린 응원과 나눔 덕분에 굿네이버스는 12년 동안 변함없이 햇산과 같이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일상 속 기적을, 전국의 아이들에게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진행될 제13회 희망편지쓰기대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주세요!

친구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친한 송’으로 배워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는 힘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2020년 언어, 사이버폭력 예방 영상 공모전’이 지난해 11월 30일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튜버 노래하는 하람과 함께 부른 ‘친한 송’ 멜로디에 친구들이 직접 붙인 가사와 안무까지, ‘친한 말* 프로젝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친한 말이란? ‘친구를 지키는 한마디 말’의 줄임말로, 언어 및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노래로 배우는 친구를 지키는 말



© 채우름 / Good Neighbors

‘친한 송’을 함께 부른 유튜버
노래하는 하람

10대 사이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지고 갈등을 겪는 언어폭력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 스스로 부정적인 말의 심각성을 깨닫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말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는 ‘2020년 언어, 사이버폭력 예방 영상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 참여하며 친구를 지키는 말을 직접 ‘친한 송’ 가사에 담아 뮤직비디오를 만든 2,165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은 바른 언어가 친구들 간 관계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고, 서로의 마음에 위로를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친한 송’ 가사 중 -

우리 아이들의 개성 톡톡 '친한 송'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를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친한 송' 가사를 만들면서 아이들은 친구를 배려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율동을 맞춰보며 학교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가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쓰는 나쁜 말을 함께 조사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선생님이 '친한 송'을 틀어주시면 학급 친구들과 떼창을 하는 게 재미있고, 친구와 메신저로 얘기하면서 '친한 송'이 생각나 나쁜 말은 쓰지 않게 됐어요.”

- 이*현 학생 / 고덕초등학교 5학년 1반 -

“욕설을 하거나 친구를 놀리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학생들 스스로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좋은 언어 습관을 내면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 이여름 선생님 / 고덕초등학교 5학년 1반 -



#고덕초등학교 #5학년1반



#자유초등학교 #5학년3반



#삼산고등학교 #2학년8반



공모전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위로를 전할 수도 있는 말 한마디의 힘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는 말로 교실을 채워나갑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언어 습관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학교와 아동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굿네이버스 인성스쿨** 을 검색하시면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영상과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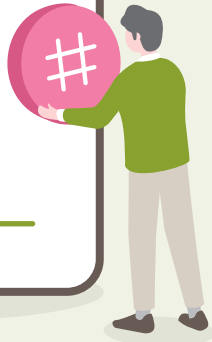


SNS로 보는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와 함께한 순간을 나누어주는
좋은 이웃의 SNS를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
일상 속에서 만난 좋은 이웃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일상 속 굿네이버스와 함께한 순간을
개인 SNS에 #굿네이버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굿네이버스
기부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굿네이버스의 소식을 모바일에서
더 빠르게 만나보세요!

하나, 굿네이버스 SNS 친구 추가

- 블로그 gnblog.kr
- 유튜브 굿네이버스
- 페이스북 goodneighbors
- 트위터 Good_Neighbors
- 인스타그램 goodneighbors
- 카카오톡 굿네이버스

둘, 굿네이버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해외아동1:1결연 #5년째후원중

지구 반대편 나의 또 다른 가족,
결연아동의 성장을 함께 느껴보세요!

chosal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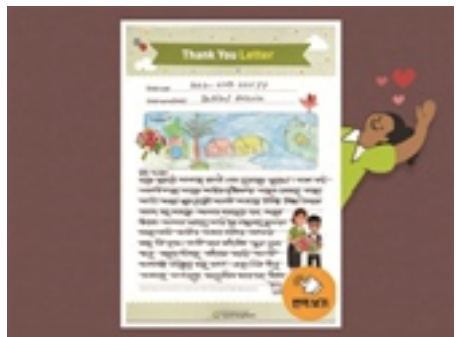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내 첫 조카♡
처음엔 그저 작고 귀여운 아기였는데, 벌써 씩씩하게 자란 것 같다.



#건강해 #응원할게

‘덕분에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잊지 않을게요’
결연아동의 마지막 편지!

moonja4594



15년간 나의 후원으로 대학생이 되어 내 곁을 떠나는 내 아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너의 앞모습을 응원할게~♡



#굿히어로 #온라인활동가

...

미션! 굿히어로가 되어 아이들을 지켜라!
아이들을 위해 뭉친 좋은 이웃 회원님들.



sora_fighting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 속 아이들을 돕는 굿히어로.
아이들을 위한 좋은 변화를 널리 알리는 아이들의 든든한 굿히어로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1월19일 #아동학대예방의날

...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모두 함께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



goodneighbors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누구든지'입니다.



#착한소비 #나눔 #연말

...

한 해의 마무리는 좋은이웃 나눔마켓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했어요!



goodneighbors



착한 소비로 연말을 더 따뜻하게, 2020 좋은이웃 나눔마켓!
'좋은이웃가게'와 '좋은이웃 기업물'을 방문해 착한 소비를 실천해요!



#봉사활동으로 시작된인연 _나눔대사까지

...

KBS 이정민 아나운서,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로!



goodneighbors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년도 회원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소외된 이웃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이 함께 해주신 날들을
기억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굿네이버스가 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2021년 1월 15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굿네이버스 회원상담센터

굿네이버스 회원상담센터를 통해 FAX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7944 ③번 기부금영수증 팩스 발급 신청
④번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 신청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앱에서 기부금영수증 출력 및 FAX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goodneighbors.kr

굿네이버스 홈페이지(PC)	나의 후원 ● 기부금영수증 출력
굿네이버스 홈페이지(Mobile)	나의 후원 ● 나의 후원내용 확인/변경 ● 후원회비 내역조회 ● 기부금영수증 FAX 신청
굿네이버스 APP	마이페이지 ● 후원정보 확인/변경 ● 후원회비 내역조회 ● 기부금영수증 FAX 신청

-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발급되며
정확하고 투명한 발급을 위해 회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 합산 공제(소득 금액 제한 있음)가 가능하오니
기부금영수증 제출처에 문의해 주세요.

● 문의 : 회원상담센터 1544-7944
기부금영수증 시즌에는 전화량이 몰려 응대가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굿네이버스
SDGs 이행보고서
(2016~2020년) 발간



굿네이버스 글로벌파트너십센터는 지난해 12월 18일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목표인 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굿네이버스가 지난 5년(2016~2020년) 동안 전 세계 48개 파트너 국가에서 수행해온 국제개발사업 및 인도적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사업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이일하 이사장,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특별상 수상



우리 단체 이일하 이사장이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에서 해외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 혹은 단체, 기업을 격려하고자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의 주최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이일하 이사장은 지난 40여 년간 지구촌 빈곤 퇴치와 NPO의 동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진X강균성X
황광희,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 참여



지난해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진행된 '오늘 만난 그 아이를 위해,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에 배우 유진, 가수 강균성, 방송인 황광희, 아나운서 이정민, 스퀘레톤 국가대표 유성빈 선수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의해 더욱 발견하기 어려워진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GG56와
사회적경제사업
개발 위한
MOA 협약 체결



지난해 8월 27일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재단은 블록체인 기술 및 빅데이터 벤처기업인 GG56(창립자 한승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GG56의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부 시스템, IT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 공동 추진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15주년 감사패 전달



지난해 11월 19일 우리 단체는 15년 동안 함께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0년에도 진행된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에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들에게 약 4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바이오세움,
코로나19 진단키트
전달



우리 단체는 지난해 11월 2일 ㈜바이오세움(상무이사 김광철)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5개국에 배포되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필리핀,
아동의 달 맞아 도서 발간**

굿네이버스 필리핀(대표 김대현)은 지난해 11월 27일 아동의 달을 맞아 아동들이 코로나19를 통해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아동 도서를 발간하고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기관 및 아동이 참여했으며, 발간한 책은 필리핀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서점에 구비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몽골,
아동권리 침해 예방 위한 영상 제작발표회**

굿네이버스 몽골(대표 조순형)은 지난해 10월 2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해받는 아동 권리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올란바토르 공무원, 방송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은 몽골 전역에 송출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미얀마,
코로나19 대응 농가 대상 종자 지원**

지난해 11월 6일, 굿네이버스 미얀마(대표 장은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양질의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넨, 코코와, 짜웅수 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380명을 대상으로 1,140자루의 종자를 배포해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에 활용될 계획이다.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증진 위한 세미나**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병익)은 11월 20일 성북구청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가정 폭력 및 심리치료 등의 영역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민·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좋은마음센터 서울동부,
심리정서지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좋은마음센터 서울동부(센터장 서은경)는 11월 17일 (주)엠피스트(대표 한영빈), 12월 1일 영락모자원(원장 이호진)과 지역 내 아동 및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위기가정의 심리정서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약사회 업무 협약 체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안소영)은 11월 13일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 수원중부·남부·서부경찰서와 학대피해아동 모니터링 및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수원시약사회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450여 개 약국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부,
'희망스트랩' 전달식 진행**

경기남부지부(지부장 김대용)는 12월 2일 평택대학교 총학생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마스크 스트랩 제작 및 응원 편지 쓰기 비대면 행사를 진행했다. 스트랩 키트는 지역 내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동시설 및 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후원금 및 식재료 전달식 진행**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승지)은 10월 27일 (주)태림에프엘(대표이사 박기식)과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과 1,400여 만 원 상당의 즉식 조리식품은 위기가정아동에게 전달되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원본부,
한국전력공사와 후원금 전달식 진행**

강원본부(본부장 박미경)는 10월 22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본부장 이봉희)와 취약계층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놀이돌봄상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임 우려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20명에게 '놀이돌봄상자'가 지원됐다.



**온주중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한 마스크 지원**

온주중합사회복지관(관장 신범수)은 10월 16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희)에 마스크 4만 5천여 장을 전달했다. 전달된 마스크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공장장 송광수 전무)의 지원으로 제작돼, 관내 46개교 초등학교들의 안전한 환경 학습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전북지부,
학대피해아동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전북지부(지부장 오아름)는 11월 17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광모)와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보드게임, DIY 세트 등 놀이감으로 구성된 '마음 돌봄 키트'는 학대피해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체험전 '놀꿈(놀면서 꿈꾼다)' 개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완진)은 전라북도청과 함께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0 아동권리체험전을 개최했다.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비대면 부모교육과 놀이교육이 진행됐으며, 이벤트에 참여한 300가정에 놀이키트가 전달될 예정이다.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YOU ARE GOOD' 마켓 진행**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민숙)과 유아전문위원들은 11월 24일 드라이브와 워킹스루 형태의 'YOU ARE GOOD' 마켓을 진행했다. 'YOU ARE GOOD' 마켓의 모든 수익금은 학대피해아동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가정에 전달될 계획이다.



**호남지역본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테마 거리 조성**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는 완도군 보길면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사랑으로 살펴보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보길도 주민과 관광객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옹호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남중부지부,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 진행**

전남중부지부(지부장 유기용)는 기아자동차, 전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과 함께 5개교 255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놀이공간 키트'를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했다. 향후 아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경북본부,
경혜라이온스클럽과 '희망트리' 전달식 진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류현희)는 11월 17일 대구경혜라이온스클럽(대표 서만선)과 '희망트리'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후원물품으로 구성된 선물상자와 함께 대구지역 취약계층 아동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0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진행**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류종택)은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조를 다짐하는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 주최 경북권역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관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샌드아트 공연, 아동학대예방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경남서부지부,
'따뜻하게 맘껏 놀자!' 후원금 전달식 진행**

경남서부지부(지부장 강성완)는 11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협력본부(본부장 김익동)와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놀이 및 방한 물품으로 구성된 '따뜻하게 맘껏 놀자!' 선물세트 제작에 사용되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좋은 이웃 의견

좋은 이웃 소식지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세요.
좋은 이웃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굿네이버스가 되겠습니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이름(회원번호)

연락처

연령대

이번 '좋은 이웃' 소식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무엇인가요?

좋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적어주세요.

굿네이버스에서는 회원님과 함께 하는 참여 이벤트(컬러링, 낱말퀴즈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해보고 싶은 재밌는 참여 콘텐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좋은 이웃 의견을 1월 31일까지 보내주신 분 중 50명을 선정하여
'2021년 굿네이버스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선정되신 회원님께는
개별 연락드리니 이름(회원번호)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참여 방법



의견 작성

또는 상단 QR코드
인식하여 모바일로
바로 의견 제출



작성한 의견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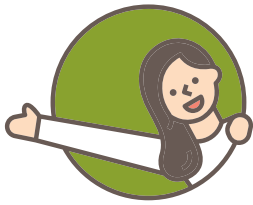
#7944 누르고
문자로 발송

또는



membership@gni.kr
메일로 발송
(이름, 연락처 반드시 기재)

좋은 이웃의 메시지



‘좋은 이웃’ 소식지 172호(2020년 가을호) <‘좋은 이웃’ 속 숨은 낱말을 찾아라>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되신 30명에게는 ‘굿네이버스 머그컵’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회원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이웃’ 소식지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주세요!



희망홍스쿨을 통해 아이들의 놀 권리와 정서 지원에 애쓰고 계신 내용을 잘 봤습니다. 육아에만 집중해 다른 곳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했어요. 내 아이와 우리 아이를 넘어서 주변을 함께 둘러보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문지현 회원님 -

결연아동과 편지를 주고받는 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뤘는데 소식지 내용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는 아동과 회원의 이야기를 보니 저도 얼른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미루지 않고 결연아동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어요!

- 배서은 회원님 -

저는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건강하게 20살을 맞이하게 됐어요. 대학 합격 후 아르바이트해서 해외아동 1:1 결연 후원을 하고 제가 후원하는 결연아동의 세상이 달라지게 해주는 게 20살 맞이 작은 소원이예요! 제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좋은 이웃이 응원해주세요!

- 이지연 회원님 -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함께 하는 마음을 모은 덕분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지에 나온 결연아동부터 르완다 주민들, 마음톡톡 키트로 만든 멋지고 희망찬 소식들은 마음을 더 튼튼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모두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 배영숙 회원님 -

모바일 수신 전환 캠페인

이제 모바일로 소식지를 받아보세요!

위기가정 여아의 걱정을 덜어줄 여성용품,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영양가 높은 음식,
넓은 교실, 깨끗한 환경...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로
소식지를 받아보시면
아이들의 삶 속에 작은 기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1분이 이뤄내는 작은 기적
'모바일로 소식지 보기' 함께 해주세요!

1만명



1년 동안 회원 1만 명이
모바일 소식을 신청하면?

위기가정 여아 3,600명에게
1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여성용품 지원

10만명



1년 동안 회원 10만 명이
모바일 소식을 신청하면?

아프리카 아동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 2개 건축

정보 변경 바로가기

[개인정보 확인/변경] 메뉴 ▶



모바일로 소식지 받아보는 방법

step 1

로그인

홈페이지
로그인

step 2



개인정보
확인/변경

step 3



문자 수신
체크

step 4



완료
수신 전환
완료

회원상담센터 1544-7944

아빠가 남기고 간 선물 7개월 채원이

작년 여름, 심장마비로 가족의 곁을 떠난 아빠.
아빠의 심장과 함께 멈춰버린 엄마와 어린 남매의 삶.

“엄마, 엄마… 눈 떠봐. 죽은 거 아니지…?”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겨운 채원이 오빠,
6살 주원이는 엄마마저 하늘나라로 갈까 봐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필요한 것은 늘어난 가는데
여분의 분유 한 통도 없이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채원이네.
임시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신문사 / Good Neighbors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후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버린
채원이네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채원이네 보금자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증금, 가전/가구 지원



채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옷, 분유, 장난감 등
육아용품&생계비 지원



엄마와 주원이가 아픔을
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심리치료비 지원

※ 본 캠페인은 아동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국내 위기가정지원사업 후원하기

☐ 월 2만 원

☐ 월 3만 원

☐ 월 5만 원

☐ 기타 월 ()만 원

후원 회원 신청 정보

회원명 : (개인/기업)

생년월일 : (남/여) 연락처 :

주소 :

[만 14세 미만 후원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 신청자와의 관계 :

납입 방법(자동이체)

※ 자동이체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지로로 후원 신청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예금주 생년월일 :

신청자와의 관계 : 본인 / 가족 / 기타 ()

예금주 연락처 :

자동이체 출금일 : ☐ 10일 ☐ 20일

※ 기존 후원 회원인 경우, 신규로 신청하신 결제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후원신청문의: 1544-7944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비스와 사단법인 굿네이비스 인터내셔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굿네이비스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성별 ※ 단, 14세 미만 후원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후원 활동을 위한 회원 관리 및 행정 처리, 회원 서비스 제공	후원 기간 종료 후 법정 기간(5년) 보유 하며 이후 폐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후원금 결제를 위한 회원 관리 및 행정 처리	

※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원 신청 및 출금 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택]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동의 여부
연락처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	후원 중단 시 또는 재공 동의 철회 시까지	☐ 동의 ☐ 미동의

※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셔도 후원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 행사 및 이벤트 안내, 소식지 발송 등 회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후원신청에 동의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7944 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굿네이버스 유산기부 캠페인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은 유산기부를 이행하기로 서약한 특별회원들의 모임입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세상의 온도는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값진 쓰임,
유산기부를 통해 세상의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해주세요.



◆ 유산기부 절차 및 클럽 등재 ◆

법률, 금융 등 MOU 협력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기부자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부자 상담

기본 상담(전화, 방문)
전문자문단을 통한 절차 확인



서약서 작성

서약서/유언장 작성
필요 시 공증 진행



클럽 등재

더네이버스레거시클럽
등재



유언 집행

사후 유언 집행



사업 수행/보고

단체 고유목적사업 수행
및 유가족 보고